

2013년 추동시즌 캐주얼 스타일 외출용 의류

최근 기능성 소재는 기능성 스포츠용도뿐만 아니라 캐주얼 의류 분야로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진화이버에서는 ‘TECH WARM 기획 전시회’를 통해 관련소재를 홍보하였다. 데이진화이버는 [2013년 추동시즌 스포츠의류 소재 전시회]에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니트 재킷과 외출용 의류를 홍보하였다. 또한 흡수속건성 소재처럼 꾸준한 인기가 있는 소재도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의 2013년 추동시즌 스포츠용 소재의 동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진화이버는 2013년 추동시즌 소재 ‘TRIPLE DRY CARAT’을 제안하였다. 흡수속건기능성은 봄과 여름철에만 필요한 기능이 아니다. 겨울의 경우 혼잡한 전철에서는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이러한 땀은 냉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겨울철 스포츠 경기에서도, 운동시 발생하는 땀에 대한 대책은 불가피하다.

데이진화이버에서는 금번 전시회에 ‘땀 처리의 최고성능’ 상품으로 ‘TRIPLE DRY CARAT’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흡수속건성 소재는 발한시의 불쾌감을 경감해주는 기능에서는 완전하지 않았다. 데이진에서 개발한 3층구조 소재는 모세관현상으로 땀을 빠르게 흡수하여, 확산시켜준다. 또한 원단의 피부측면에 폴리에스터 발수사를 사용하여, 완전 소수성층을 설계한 점이 기존의 소재와 다른점이다. 이 소재는 한번 흡수한 땀이 피부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며, 땀에 의한 냉기 및 들러붙는 느낌을 방지해준다. 데이진 화이버는 이 소재를 스포츠용 뿐만 아니라 외출용 의류로도 제안하였다.

아세히카세히섬유는 ‘LIVE GEAR 전시회’에서 새로운 흡수속건 소재 ‘SUREDRY Max β ’를 발표하였다. 이 소재는 흡수폴리에스터층과 확산폴리에스터층 사이에 흡방습성이 있는 뱀베르크를 끼워 놓은 구조이다. 기존제품은

대량의 땀에 약하고, 피부측면의 건조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뱀베르크 소재를 포함시켜 의복내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골프나 런닝용 소재로 제안되고 있다.

도요보STC(Specialties trading)사의 ‘SURE SPORTS 전시회’에서는 2013년 추동 스포츠용 소재로 ‘흡습발열소재’를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도요보STC는 기능성 소재의 캐주얼화 흐름속에서 소재의 라인을 재구축하기 위해 장섬유의 기능성은 잃지 않으면서, 단섬유처럼 가공처리한 스웨트 원단을 새롭게 제안하여, 면과 같은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TechAir’를 사용한 스웨트 원단 ‘e-스웨트’를 발표하였다.

유니티카트레이딩은 ‘2013년 추동시즌 기능성소재 전시회’에서 소비자 중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따뜻함을 추구한 기능성 소재를 제안하였다. 전천후형 보온소재 ‘Thermotron RadiPoka’는 원적외선과 광흡수 열변환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폴리에스터에 혼입한 것으로 ‘실내외서 모두 따뜻함’을 어필하고 있다.

한편, 세이렌의 ‘2013년 추동시즌 스포츠소재·제품상당회’에서는 동사의 의류 일괄생산 공장인 해외관련기업 사하세이렌(SAHA SEIREN CO. LTD.)의 소개와 함께 그곳에서 생산된 니트셔츠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관련 의류제품을 소개하여, 세이렌의 글로벌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